



# “Lord Buddha ♪♪♪~” 영어·불교 신나요~

(거룩하신 부처님)

## 국제포교사회, '제3회 어린이 영어 캠프' 현장



색종이로 연꽃만들기 체험.

“Where are you from?(어디서 왔니?)” “I’m from Busan.(부산에서 왔어)” “Lord Buddha(거룩하신 부처님). Lord Buddha ♪♪♪~”

1월 13일 아침 9시, 서울 화계사 보화루. 외국 어린이들이 화계사로 템플스테이를 왔을까? 보화루 밖으로 들리는 소리는 온통 영어동요와 영어대화 뿐이지만 사실은 국제포교사회(회장 강영성)가 개최한 ‘제3회 어린이 영어 캠프(3rd YOUTH BUDDHIST ENGLISH FUN DAY)’ 현장이다.

초·중등생 42명이 참가한 이번 영어캠프의 첫 프로그램은 ‘영어로 듣는 부처님 전생담’ 시간. 국제포교사 김나영 선생님이 “What was your former life?(전생에 우린 뭐였을까?)”라고 묻자 아이들은 저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Tree(나무요), Tiger(호랑이요), Prince(왕자요)…”라고 외쳐댄다.

“자~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 전생담 한편을 소개할까 해요. 부처님이 전생에 사슴이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슴이 사냥꾼이 쳐 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중략)사슴의 친구인 거북이와 까치가 그물에 걸린 사슴을 구해 줬어요. 부처님 전생담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자~누가 한번 발표해 볼 사람?” “저요. 저요. 저요.” 여기저기서 “제가 발표할게요”라며 손을 드는 모습이 마치 코미디 프로그램 ‘봉숭아 학당’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라 있다.

“음~. 지현이가 한번 말해볼까?” “네. 친구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친구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 은혜를 갚아야 해요.”

“은주 생각은 어때?” “다 같이 힘을 모으면 더 큰 힘이 생기고 서로 협동해서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친구랑 싸



점심공양(사진 왼쪽) 모습과 촛불 명상시간.

## 부처님전생담 영어로 들으며 자연스럽게 영어·불교 공부 절 밥 맛있다며 두 그릇 먹기도 부모 은혜 생각하며 촛불명상

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공양개송 배우기’ 시간. 국제포교사 자유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이 “이 음식에 깃든 은혜 두 손 모아 감사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 명심발원하옵시다. ♪♪♪”라고 선창하고 아이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따라한다. 개송이 끝난 후 스님이 “어려운 노래 잘 배웠죠? 근데, 노래 가사 중 ‘상구보리 하화중생’ 뜻 아는 사람 손들어 봐요”라고 묻자 순간 다들 팔 먹은 병 어리처럼 대답이 없다. 이런 침묵을 깨고 장난기가 발동한 윤태호(백운초교4군)이 “상구가 보리밥 먹는 거요

~.”라고 말하자 모두들 한바탕 배를 잡고 웃었다. 태호의 장난에 어이가 없었는지 석송연(고은초교6양)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위로는 깨달음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는 대승불교의 자리가 타 정신을 표현한 말입니다”라고 발표하자 참가한 아이들 모두 “우와~짱 잘 안다”라며 뜨거운 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오후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촛불 명상’. 불이 꺼진 캄캄한 보화루 법당. 가부좌를 튼 42명의 아이들의 무릎 앞으로 촛불 하나씩이 켜져 있고 명상음악이 잔잔하게 보화루를 휘감고 돈다. 촛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아이들은 발원문을 포박포박 낭독한다.

“나의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하기를 발원합니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하기를 발원합니다. 나의 친구들의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하기를 발원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 항상 기만한 사람들을 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할 것을 맹세합니다.”

촛불명상이 끝난 후 “어땠느냐”고 기자가 묻자 최호민(독립문초교4군)은 “앞으로 동생하고도 싸우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말썽 안 피우는 사람이 되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 해야겠다”고 말했다. 남승경(오봉초교3양)도 “평생에는 부모님의 소중함을 잘 몰랐는데 촛불명상을 통해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입은 은혜가 많았다는 걸 느꼈고 그분들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글·사진=노병철 기자

## 6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 겨울 숲속 여행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문화회에서는 1월 한달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문화체험 교실’을 연다.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요가, 인성교육, POP 글쓰기, 북아트, 뮤지컬 인클러쉬 등이다. (02)3707-9611

### 어린이 문화 체험 교실

광양청소년문화회장은 1월 한달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문화체험 교실’을 연다.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요가, 인성교육, POP 글쓰기, 북아트, 뮤지컬 인클러쉬 등이다. (06)1761-1335

### 자녀의 학습습기 & 대화기법 배우기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문화회에서는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습 습기 및 대화기법’을 주제로 강의를 연다. 강의 내용은 부모가 도와주는 학습

환경, 독서 방법, 효과적인 대화방법, 미래 사회의 인재 기르기 등이다. (02)898-4941

### ‘인권포럼’ 참가자 모집

사단법인 아시아인권센터는 ‘제 2회 아시아인권 포럼’ 청소년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만 16세~18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신청서류와 기관장 혹은 학교장의 추천서를 메일(achr@achumanrights.org)로 보내면 된다. 포럼행사는 2월 5일이며 등록마감은 1월 29일까지다. (02)723-1671

### 자원봉사 프로그램 체험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중·고등생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사랑체험’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03)1716-4215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51로 연락주세요.

##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현대불교 연중 캠페인 전개

‘현대불교’가 2007년 ‘새싹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1996년 ‘새싹불자를 키웁시다’란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했던 현대불교가 다시 같은 주제의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 현상이 여전히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방치하고는 불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올해부터 어린이 포교 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새싹 불자 키우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대불교’ 역시 불교의 미래를 밝게 열겠다는 각오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 캠페인 전용 지원 두꺼번 마련

‘현대불교’는 매주 2페이지씩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면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활기찬 법회 현장과 각종 활동 현장을 소개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만화, 길잡이 등의 연재를 통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 종립학교에 ‘현대불교’ 보내기

현재 불교계 종립학교는 30 곳이며 총 학급 수는 750 개에 이릅니다. 가장 가까운 포교 마당인 종립학교 교실마다 ‘현대불교’를 보내 어린이·청소년들을 불교와 보다 친근하게 인연을 맺어주고자 합니다. 또 각 종립학교의 교장·교감 선생님과 교보사, 도서관, 불교 동아리 등에서 ‘현대불교’를 매주 만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종립 중고교생 눈송경시대회

눈송이 입시의 최고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종립 중고교생들의 눈송이 기량을 높이고 불교의 교리와 사

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눈송이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눈송 경시대회를 개최해 종립학교 학생들의 학업을 돕겠습니다.

### ■ 수행생을 위한 마가스님의 ‘자비명상’

수행생과 학부모를 위해 ‘특별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자비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해 주목받고 있는 마가스님(천안 만일사 주지)이 2월 10일과 11일, 24일과 25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자비명상’을 진행합니다. (문의 02-2004-8237)

### ■ 희망의 템플 스테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사찰에서 며칠 묵으며 각종 문화와 수행을 체험하는 것은 인생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현대불교’는 방학을 이용해 보다 알차고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겠습니다.

### ■ 캠페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우체국 010579-02-078140 (예금주 노병철)

## 정해년 새해 마가스님 틱낫한 스님과 함께 떠나는 명상여행

# 베트남 “호치민” / 캄보디아 “앙코르왓” 6일 베트남 북부 “하롱베이” 5일



귀의 삼보하옵고, 정해년 새해를 맞아 베트남 현지에서 틱낫한스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명상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길을 찾아 마가스님과 함께 떠나는 명상여행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제여행사 대표 구광국 합장

### 마가스님

2003년 중앙대학교의 명상 강의와 마국사의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통해 자신을 느끼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알리는데 전력을 다하신 스님입니다. 그런 스님이 이번에 정년 수행자이신 틱낫한 스님을 친견하고 한국 불자들에게 정년 수행을 전하고자 베트남에서 ‘명상여행’ 프로그램을 마련 하였습니다. 틱낫한 스님은 1999년과 2003년에 한국을 방문 했었고 스님의 저서 (화)(명진출판사)와 플립블리지 정년수행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님입니다. ‘명상여행’은 틱낫한스님의 법문을 듣고 함께 명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명상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마가스님 뿐만 아니라 참가자 20명 당 1명의 명상 지도자가 배치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틱낫한 스님

1926년에 베트남에서 출생해서 열여섯살에 선불교에 입문했습니다. 30대 중반 스님은 미국에서 비교종교학강의를 하여 반전 평화운동과 베트남인민과 부상자를 돕기 위한 사회봉사 청년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공로로 마틴루터 킹 목사의 추천으로 노벨평화상 후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프랑스로 망명해 명상공동체 ‘스위트 포테이토’ ‘플립블리지’를 설립하고 미국에도 ‘단풍림 승원’ ‘그린마운틴 수행원’ 등을 차례로 설립해 명상수행을 세계에 알리고자 힘써왔습니다. 저서로는(화), (기도), (틱낫한의 평화로운) 등 10여 종의 책들이 애독되고 있습니다.

### 1차 베트남·캄보디아 “앙코르왓” 6일(4박6일)

- ◆ 기 간 : 2007년 3월 7일 ~ 3월 12일
- ◆ 출발인원 : 60인 이상
- ◆ 동 차 비 : ₩1,190,000 / 1인

### 2차 베트남 북부 “하롱베이” 5일(3박5일)

- ◆ 기 간 : 2007년 5월 2일 ~ 5월 6일
- ◆ 출발인원 : 60인 이상
- ◆ 동 차 비 : ₩950,000 / 1인

고아원이나 현지의 가난한 마을을 방문합니다.

집에 있는 현 옷가지를 가져오시면 현지에서 있는 불우한 이웃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불교성지순례 전문 아제여행사 02)730-4008 홈페이지 : www.ajetour.co.kr 또는 한글 '아제여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명진출판사에서 틱낫한 스님의 책 (기도)를 증정합니다.

### ■ 베트남·캄보디아 “앙코르왓” 6일

날 짜	지 역	교통편	시 간	행 사 일 정	식 사
제1일	인 천	VN939	10:25	인천 출발 // 호치민 항행	석-한 식
3/7	씨엠립	VN829	14:00	호치민 도착후 경유하여(공헌대기)	
			16:30	호치민 출발 // 씨엠립 항행	
				HOTEL:1ST CLASS 또는 동급	
제2일	씨엠립	차 량	전 일	아침공양 후 순례 - 앙코르를 일원의 남문 남쪽 크레앙, 바푸문사원 - 바이문사원, 고끼리데라스, 레프왕타라스, 타푸문사원 관광 - 점심공양 후 세개마을 불기사의인 앙코르와트 관광 - 앙코르와트 일출감상 (소풍선타바문보석식 상하버섯상) 저녁공양 후(입실리만숙소) 및 호텔투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제3일	씨엠립	차 량	전 일	아침공양 후 트레십 호수 관광 및 수상선 관광 - 점심공양 후 바레이호수 및 웨스트 메본사원 관광 → 작인힐링랜드 관광 저녁공양 후 공항으로 이동 // 씨엠립 출발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HOTEL:1ST CLASS 또는 동급	
제4일	호치민	차 량	전 일	아침공양 후 순례 → 메콩델타 지역인 미토로 이동(2시간 20분 소요) - 선관으로 워니관성으로 이동-하치안 가이도 동행 엘레과와시시, 엘레과수농장, 정물생활유습 - 중식(생선, 스티브트, 볶음요리, 튀김, 베트남 빵등) 바오록(Bao Loc)으로 이동(5시간 정도 소요 예상) 호텔 투숙 및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HOTEL:1ST CLASS 또는 동급	
제5일	바오록	차 량	06:00	- 틱낫한스님 법문 및 2천여명의 수도승 탁발의식 참가 점심공양 후 바오록 출발 // 호치민 항행 → 호치민 도착 후 저녁공양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제6일	호치민	호치민	3/12	공항으로 이동	기내식 석-현지식
제7일	호치민	VN938	01:10	호치민 출발 // 인천 항행	조-기내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도착 후산	*성불하심시요

### ■ 베트남 북부 “하롱베이” 5일

날 짜	지 역	교통편	시 간	행 사 일 정	식 사
제1일	인 천	VN937	08:10	인천 국제공항 3층 L과 M사이 집결	조-기내식 중-쌀국수 석-한 식
5/2	하노이		10:40	인천 출발 // 하노이 항행	
			13:10	하노이 도착 → 중식(쌀국수) 후 관광 - 호안킴 호수, 하롱베이로 이동(4시간 소요) 저녁공양 후 수상인형극 관람	
				HOTEL:1ST CLASS 또는 동급	
제2일	하노이	차 량	전 일	아침공양 후 공식행사 참가 틱낫한 스님 법문 저녁공양 후 호텔투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제3일	하노이	차 량	전 일	아침공양 후 시내관광 호치민 박물관, 호치민 영묘, 항기동 시엔, 비단관광 중식 후 하롱베이를 이동(4시간 소요) - 영화 ‘인도차이’에서 린당방이 은신하였던 아름다운 경치 저녁공양 후 호텔 투숙	조-호텔식 중-한 식 석-현지식
제4일	하롱베이	차 량	전 일	아침공양 후 하롱베이 관광 유네스코 지정 관광지 3천여개의 섬 관광 → 선상 중식 하노이로 귀환 → 저녁공양 후 공항으로 이동 사이공 안산디너 및 아경탐상 후 공항으로 이동	조-호텔식 중-한 식 석-현지식
제5일	하노이	VN936	00:35	하노이 출발 // 인천 항행	기내식
5/6	인 천		06:40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도착 후산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도착 후산	*성불하심시요

\*상기 일정은 항공과 현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